- 2018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경 기 도 의 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목 차

Ⅰ 총 평 ····· 2

Ⅱ 국외연수 개요 ····· 5

Ⅲ 주요 활동내용 ····· 7

1 뉴질랜드 현황 ····· 7

2 기관방문 내용 ····· 7

1. 퀸스타운 리조트 대학(Queenstown Resort College) ····· 7

2. 플룬켓(Plunket) ····· 12

Ⅳ 시사점 ····· 18

Ⅴ 기관방문 사진 ····· 21

Ⅰ 총 평

□ 뉴질랜드의 위원회 소관 분야 정책사례 견학

○ 2018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국외연수단은 가족과 여성, 보육 및 평생교육 등 위원회 소관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대학과 정부산하 비영리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실무자의 의견과 현장 경험을 청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해외 현장 연수를 실시함.

□ 투어리즘 산업과 학교교육의 긴밀한 연계 벤치마킹 필요

○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형 인재를 양성시켜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을 유기적으로 체계화 하는 시스템으로 특성화 된 교육 제공.

□ 취업에 필요한 사회시스템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 우리나라 전문대학과 같은 전문교육의 시스템은 사회에서 100%를 수용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과 및 학교가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립되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청년들의 역할이 국가적으로도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

○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어드벤처, 카지노 레저 등의 지역산업에 맞는 맞춤형 전문적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명문 프리미엄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학생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뉴질랜드의 전문적 교육시스템을 국내에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자녀돌봄 체계 벤치마킹 필요

○ 현재 우리사회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은 자녀돌봄에 대한 통합적이고 충분한 지원과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일과 생활이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합계출산율이 2명 내외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임. 뉴질랜드 연수를 통해 영유아 돌봄 지원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음.

○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5세 이하 아동과 관련한 지원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유기적·통합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영유아 보건, 돌봄 등이 각각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자녀양육지원을 위하여 뉴질랜드의 통합적인 영유아 지원 체계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종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정책

○ 뉴질랜드는 유럽계 백인이 70% 이상을 차지하나 마오리족, 아시아계, 태평양 원주민 등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가진 나라임.
특히 아시아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아시아계 주민을 위한 영유아 및 가족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소수 인종인 태평양 원주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뉴질랜드의 가족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가족정책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인구와 그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인종 다양성이 가족정책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인종 다양성을 단순히 다문화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과 결합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Ⅱ 국외연수 개요

□ **연수목적 및 배경**

○ 해외 선진국의 여성·가족, 보육, 아동 · 청소년, 다문화, 평생교육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서비스 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의원의 정책 능력을 함양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 **연수기간** : 2018. 1. 15.(월) ~ 1. 20.(토) 【4박 6일】

□ **연수국가** : 뉴질랜드

□ **연수인원** : 18명(의원 8, 직원 10)

□ **공식 방문기관**

○ 퀸스타운 리조트 대학(Queenstown Resort College),

○ 플룬켓(Plunket)

□ **주요내용**

○ 선진국의 아동복지, 청소년, 가족, 평생교육 분야 등 정책 사례 비교·분석 및 자료 수집

○ 뉴질랜드 대학교 견학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및 정책 확인

○ 뉴질랜드 0~5세 영유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서비스 등 보편적 가족복지 정책 확인

□ 국외활동자 명단(18명)

연번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성 별	비 고
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남	
2		간 사	박옥분	여	
3		위 원	김종찬	남	
4		위 원	배수문	남	
5		위 원	오세영	남	
6		위 원	윤재우	남	
7		위 원	이나영	여	
8		위 원	이순희	여	
9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	공석성	남	
10		주무관	호만기	남	
11		주무관	이상열	여	
12		주무관	박은아	여	
13	경기도(교육정책과)	주무관	장미정	여	
14	경기도(여성권익가족과)	과장	배한일	남	
15	경기도(가족복지담당관)	과장	정의진	남	
1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문직 3급	강성규	남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장종재	남	
18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노경혜	여	

Ⅲ 주요 활동내용

1 뉴질랜드 현황

□ 개 관

○ 수도 : 웰링턴

○ 면적 : 270,692㎢(한반도의 1.2배)

○ 인구 : 4,510,327명(2017년 기준)

○ 언어 : 마오리어,영어

○ 종교 : 성공회(15%), 로마가톨릭(12%), 장로교

○ 민족 : 유럽계 백인(70%), 마오리족(8%), 태평양제도인

○ 정부/의회형태 : 입헌군주제/ 단원제

○ 화폐 : 뉴질랜드 달러 (NZD)

2 기관방문 내용

1. 퀸스타운 리조트 대학(Queenstown Resort College)

□ 기관개요

○ 명 칭 : Queenstown Resort College

○ 소 재 지 : 7 Coronation Drive 9348 Queenstown

○ 연 락 처 : +64 3-409-0500

○ 홈페이지 : https://www.academiccourses.kr

○ 방문일자 : 2018. 1. 16(화) 15:30 ~16:30

□ 주요 서비스 내용

○ 기관소개

- Queenstown 리조트 대학은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산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 이 대학은 2년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최고의 관광 및 호텔경영 관련 학교임.

- 학교의 커리큘럼은 3가지 방향을 기본적으로 가지는데 , 이론(think it), 실습(do it), 필드(be it) 의 3가지 교육체계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형 인재양성 배출을 목표로 함.

- 학교의 학생수는 약 400여명이며, 1년 학비는 한화 기준으로 연 1,600만원 수준이며 기숙사비는 연 100만원 수준으로 별도로 책정되고 있음 뉴질랜드 학생의 경우 학비는 연 1,000만원 수준으로 외국 유학생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임.

- 학교의 취업률은 100%에 육박하며,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퀸스타운 리조트대학의 입학은 ILET 시험에 의한 영어면접을 통해서 입학하게 되고, 현재 한국학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한국학생 유치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음.

○ 특 징

- 대학의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의 수혜자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론, 실습 및 현장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 타 호텔 관련 학교들에 비해 요구하는 영어수준이 ILET 6.0으로 상당히 높은데, 이는 오클랜드 유명대학의 학사과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설 전문학교 수준에서는 많은 학습자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개강일이 1, 4, 7, 10월인데 현지학생과 국제학생들의 일정이 6개월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 학교에서는 항상 1년 후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 모든 신입생들에 대한 영어 interview 가 있지만, “QRC” 라는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음

- 학교 교육과정은 “호스피탤리티 경영학”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과 액티비티의 천국 퀸스타운에 최적화된 “어드벤쳐 관광 경영학” (Diploma of Advanture Tourism Management)으로 나뉨 “호스피탤리티 경영학” 은 다시 3가지 부류로 나뉘며, 리조트 스파 경영 (International Resort & Day Spa Manaement), 와인학(Wine Studies), 이벤트 경영(Event Management)이 있음

- 학교 교육과정은 6~9개월간의 인턴쉽을 포함해 2년이며 대부분 6개월 학업 , 9개월 인턴쉽, 6개월 학업으로 코스를 마무리하고 있고, 인턴쉽 기간 동안 뉴질랜드 내에서 약 $ 14~16 정도의 시급을 받으며, 수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질문) 뉴질랜드 전반적인 대학 교육 시스템에 대한 소개 바람

-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 시스템 과는 차이가 있으며, 2, 3, 4년제 학사 제도에 따라 대학의 졸업장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한 학기당 약 12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질문) 퀸스타운 리조트 대학의 등록금 및 기숙사 비용은?

- 학비는 국제학생 기준으로 한화로 연간 약 1,600만원 수준이며, 기숙사 비용은 월 100만원 수준임.
  또한 자국 학생의 경우는 뉴질랜드 교육정책에 따라 대학교 1학년 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한화로 약 1,000만원 가량 학비가 책정되고 있음.

○ (질문) 취업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

- 아시아권의 대학과 뉴질랜드의 대학의 개념은 상이함.
  보통 아시아권의 경우 석사,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과 연계하는 교육 시스템인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는 학위가 중요하지 않고 실무형 중심 교육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만 받으면 취업이 되고, 대학은 이러한 실무형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대학의 경우도 2년의 교육과정 중 3~9개월의 인턴쉽을 꼭 거쳐야 취업이 되는 실무형 교육중심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도 국내의 대학개념과 같이 학위취득과 관련한 학업도 50% 정도는 이루어지고는 있음

○ (질문) 뉴질랜드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취업 현황은 어떤지?

- 뉴질랜드의 청년들은 대부분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있으나, 특히 여행업의 경우는 대학들이 아직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까지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부족한 상황임
  뉴질랜드는 현재 사회적 수요 대비 해당학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특수한 목적의 학교가 설립되는 등 취업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질문) 사립대학은 정부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가?

- 동 대학은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되는 대학으로, 현지 학생입장에서도 2년제 학위 과정 기준으로 보면 고가의 학비이며, 유학생 학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므로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명문 프리미엄 사학으로 발돋움 하고 있음.

2. 플룬켓(Plunket)

□ 기관개요

○ 명　　칭 : PLUNKET

○ 소 재 지 : 50 Buckley Road, Royal Oak, Auckland, NZ

○ 연 락 처 : 09-625-7906

○ 홈페이지 : https://www.pounket.org.nz/

○ 방문일자 : 2018. 1. 18(목) 11:00 ~12:00

□ 주요 서비스 내용

○ 기관 소개

- Plunket은 뉴질랜드 정부산하 비영리 조직으로 0~5세 영유아의 발달, 건강 및 복지를 위한 뉴질랜드 최대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임.
  소관부처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이며, 지역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함.

- Plunket 서비스는 거주 상태에 관계없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아동복지 전문가 및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기관으로 부모와 영유아가 방문하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Plunket Society는 1907년 Dunedin에서 어린이 건강에 관심이 큰 Frederic Truby King 경에 의해 설립되었음.
  그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영양 및 영유아 돌봄에 관한 정책이 아기와 어린이의 사망률을 줄이고 국가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고 믿었음

- 기관 명칭인 “Plunket” 은 영향력 있는 후원가인 Victoria Plunket의 이름에서 유래함

- Plunket은 뉴질랜드 전역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정부, 지역사회, 기업으로부터 펀딩을 통해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아동 건강에 대한 동반자 관계를 도모하고 있음.

- 뉴질랜드 전역에 총 829개 센터가 있음

○ 특 징

- 0~5세 영유아의 양육 및 보건, 교육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

- 민족, 지위,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영유아를 위한 보건소 및 육아지원센터 역할이 핵심적인 기능으로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함

- 24시간 상담을 위한 콜센터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긴급한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Plunket은 지역 사회 내의 사람, 조직, 기업, 정부를 상호 연결하고, 각각의 지역사회더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는 Plunket의 핵심으로 고도로 숙련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기반을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
  Plunket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과 기금 모금 등도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토대로 함

○ 주요 서비스

- Plunket visits(방문서비스)

무료 가정 방문 및 클리닉 방문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서비스는 Plunket 서비스의 핵심임.

출산 후 산모 및 아기를 위한 가정 방문,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클리닉과 추가 가정방문이 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음.

Plunket 간호사는 아기의 성장 및 발달, 청력, 시력 및 건강을 평가함. 방문은 신생아의 필요에 맞춰 가족 전체를 돌보고 지원하는데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간호사는 계속적으로 성장 발육을 평가하고 모유 수유, 영양, 육아, 수면, 금연, 안전, 예방 접종 및 가족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함

- Car seat advice(카시트 안내)

Plunket에는 유아용 카시트 관련 기술자가 있어, 카시트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조언을 제공함

- PlunketLine 0800 933 922(24시간 전화상담)

PlunketLine은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든 0~5세아 관련 가족 및 간병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4개의 거점센터에서 운영 중

- Parenting education(부모교육)

Plunket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무료 육아 수업을 통해 자녀 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

- Toy libraries(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성장 단계에 맞게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여 무료로 임대하고 있음

- Pacific services(태평양계 주민 서비스)

태평양 지역 거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태평양 어린이와 가족의 삶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 Asian Peoples and Communities(아시아계 주민 지원)

뉴질랜드 지역은 최근 아시아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아시아계는 유럽계, 마오리족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성장을 고려하여 아시아계 주민을 위한 지원 전략을 수립함.

아시아 언어로 된 자료 개발, 아시아 언어 구사 직원의 채용 확대, 아시아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 아시아계 가족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함.

중국어, 한국어, 힌두어 등 아시아 아동을 위한 별도의 수업도 제공

- Parent groups(부모 그룹)

여러 부모·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모여 다른 부모들을 만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운영 및 지원함

- Play groups(놀이 그룹)

다양한 부모와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역 공동체의 비영리 유아 센터를 운영함

- Family centres(가족센터)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센터를 통해 육아에 관한 추가적인 도움을 지원함. 센터에는 모유수유, 영아영양, 수면, 어린이 행동 및 부모·가족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다양한 양육문제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

– 학교교육 및 초기 아동기 교육 지원
아동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함양하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홈페이지 서비스
Plunket 홈페이지에는 간호사가 양육자 지원을 위해 작성한 「Thriving Under Five」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질문) 뉴질랜드의 유아 교육에 대한 설명

– 뉴질랜드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누리과정과 같은 별도의 유아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음.
초등학교의 경우도 교과서 없이 공통된 주제만으로 운영하는 등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질문) 뉴질랜드는 맞벌이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는 없는지? 또한 맞벌이 관련 지원책은 있는가?

– 뉴질랜드의 합계 출산율은 2명 이상이며, 마오리족의 경우 더 많은 자녀를 두는 경향이 있음

– 뉴질랜드는 맞벌이가 보편적이며,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5시가 되면 대부분 퇴근하는 문화임

–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지만 가족의 경제 상태나 활동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영유아를 가진 가족이 주 20시간 양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질문) Plunket은 얼마나 많은 센터가 있는가?

– Plunket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뉴질랜드 전역의 거의 모든 마을마다 Plunket 지역 센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지역주민들은 필요할 때 지역 센터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질문) Plunket 근무 인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Plunket의 종사자는 대부분이 간호학이나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임

– 전국적으로 15,000명의 유급인력 외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음

○ (질문) 장애아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장애가 심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는 전담 교사가 별도로 배정됨

Ⅳ 시사점

□ 취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 퀸스타운 리조트 대학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의 교육정책은 철저하게 실무형 위주의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턴쉽 방식의 전문학사 과정을 도입하여 기존 이론교육 2년 과정에서 벗어나 한 학기 정도 현장 중심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여 취업난 해결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의 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기도 내 2년제 대학과 연계하여 동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특성화 대학설립 정책 요구

○ 뉴질랜드의 경우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성화 형태(ex. 리조트대학)의 대학교가 생기게 되고 전문적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메우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이와 같은 학교설립을 포함한 교육 정책의 유연성은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족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모색

○ 뉴질랜드 정부산하 비영리 기관인 Plunket은 0~5세 영유아의 양육 및 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지원이 각 분야별 기관(보건소,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분산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통합적인 연계 및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및 가족생활주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자원, 당면하는 어려움 등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가족정책은 생애주기나 가족생활주기의 발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가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문화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사회문화를 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합계출산율을 중심으로 설정하며 경제적 지원 및 개인의 인식전환(가족친화 가치 전달)을 중심으로 저출산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경제적 지원과 개개인의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여건 확립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개인의 인식 전환도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 뉴질랜드는 자녀출산 및 양육,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도 잘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이 사회문화 전반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며 맞벌이가 보편적인 경제활동의 형태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우리나라도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을 경제적인 지원을 중심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정책적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종다양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 뉴질랜드는 유럽계 백인과 마오리족이 공존하는 사회이며, 근래 들어 아시아계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뉴질랜드는 정책적으로 소수인종이 뉴질랜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있는 소수인종들에 대해서는 Plunket을 통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음.

Plunket은 인종과 관계없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아시아계 주민의 경우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시아 언어로 된 자료 개발과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의 채용 및 특정 서비스 개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지원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가 거주하는 만큼 단일민족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다인종 사회로서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보다 필요한 시점임.

또한 가족정책의 경우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가족행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취약가족 지원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외국인 주민을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및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V 기관방문 사진

퀸스타운 리조트 대학

플룬켓